

사생활 무관하며 철저적인 훈련으로 상상을 초월한다.

임핑 나이너스터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명IC 구간 광복동역드라운
- (명동출발)10월 30일 10시 30분 개시
- 인천시 9월 이후 출발요금형성제 실시
- 예약: www.hpdyashy.co.kr 0801-320-7700



“K리거 중용”

‘허정무호’ UAE 전 예비 명단 30명 확정
박지성 등 해외파 4명 선발...박주영 제외

허정무 감독이 아랍에미리트연합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축구 아시아 지역 2차 예선(15일 오후 8시·서울월드컵경기장)을 치를 대표팀 예비명단 30명을 2일 확정했다.

이번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K-리거의 중용’이다.

경험과 패기의 조화를 강조해 온 허 감독은 경험 많은 해외파 가운데에서는 수비수 이영표(보루시아 도르트문트), 김동진(제니트), 오범석(사마라)과 미드필더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넷만 뽑았다.

지난달 10일 북한과 1차전 때는 합류하지 않았던 이영표와 박지성이 허 감독의 부름을 받았지만 프랑스 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공격수 박주영(AS모나코)과 소속팀에서 한겨울 주전 경쟁을 벌이고 있

는 설기현(풀럼)은 다시 제외됐다.

대표팀에서 줄곧 주장 완장을 차 왔던 미드필더 김남일(비셀 고베)은 경교 누적 UAE전을 뛴 수 없어 명단에서 빠졌다.

대신 허 감독은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새 얼굴’들에게 큰 기대를 건 모습이다.

미드필더 박현범(수원), 박희도(부산), 김형범(전북), 송정현(전남)과 공격수 정성훈(부산) 등 무려 여섯 명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처음으로 A대표에 발탁될 기회를 잡았다. 이 중 중앙 미드필더 박현범과 측면 미드필더 박희도는 K-리그에서도 새내기다.

하지만 청소년대표 출신 박현범은 올 시즌 16경기에서 2골2도움, 박희도는 20경기에서 2골3도움을 올리는 등 빠른 적응

력을 보이며 신인왕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최근 잇따라 A매치에 데뷔한 미드필더 이청용과 기성용(이상 서울)이 일찌감치 골맛까지 보면서 허 감독의 신임을 쌓아가는 터라 박현범과 박희도도 내심 태극마크를 기대할 만하다.

프로 5년차 임유환과 김형범, 7년차 정성훈도 아직 A대표로 뽑힌 적은 없다. 하지만 청소년,올림픽대표를 거친 임유환은 올 시즌 26경기에서 3골, 프리킥이 좋은 김형범은 23경기에서 5골2도움을 각각 기록 중이고, 정성훈도 26경기에서 8골2도움을 올리며 토종 골잡이의 체면을 세워주는 등 이들 모두 K-리그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줘 왔다.

1999년 전남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한 송정현에게는 서른들의 나이에 태극마크를

달 기회가 찾아왔다.

공격형 미드필더와 처진 스트라이커 역할을 해내는 송정현은 1일 부산과 삼성하우젠컵 6강 플레이오프(전남 3-0 승)에서 추가골을 뽑는 등 올 시즌 14경기에서 3골 1도움을 올리며 전남 공격의 핵심 선수로 뛰고 있다.

최전방 공격라인은 조재진(전북)이나 이천수(수원) 등 경험 많은 선수를 대신 K-리그에서 팔팔 날고 있는 ‘젊은 피’로 꾸려졌다. 스몰아킥의 정성훈을 제외하면 송정현, 신영록(이상 수원), 정조국(서울), 이근호(대구) 등 나머지 공격수는 모두 24세 이하의 젊은 선수들이다.

허 감독은 최근 K-리그 공격수들의 몸상태가 좋고, 해외파와 상대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해 이들을 대거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전남, 포항과 결승행 다툼

부산 3-0 꺾고 4강 진출
수원-전북 8일 준결승



‘단 판승부의 강자’ 전남 드래곤즈가 2008 삼성 하우젠컵 4강에 올랐다.

전남은 지난 1일 부산 아시안드 경기장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리그컵 6강 플레이오프에서 전반 8분과 44분에 터진 슈바의 연속골과 송정현의 쐐기골로 3-0으로 승리를 거둬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날 경기에서 전남의 철벽 수비와 슈바의 공격력이 가동됐다.

전남은 부산의 빠른 공격 전환을 막기 위해 주전 수비수 박지용을 미드필드로 기용하고, 이준기-곽태휘-정인환을 최후방에 배치해 상대 발을 묶었다.

경기 시작 8분만에 슈바가 역습상황을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선제골을 뽑아낸 것도 3-0 완승의 발판이 됐다.

지난해 챔피언으로 조별리그를 거치지 않고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전남은 손쉽게 부산을 제압하고 준결승 티켓을 거머쥐면서 토너먼트에 강한 면모를 다시 한 번 과시했다.

같은 날 전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전남 일화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에서는 포항이 노병준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두며 ‘제철가 형제’라한 준결승에 안착했다.

포항과 전남은 오는 8일 A·B조 1위로 플레이오프에 합류한 수원, 전북과 결승 진출을 위한 맞대결을 펼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어린이 축구단 ‘중마리틀드래곤즈’ 운영

전남 드래곤즈가 지난 1일 오후 광양 환경사업소 잔디구장에서 어린이 축구단 ‘중마 리틀드래곤즈’ 개소식을 가졌다.

‘중마 리틀드래곤즈’는 전남이 어린이 축구 발전과 지역 축구 인재 조기 발굴·육성을 위해 조직한 축구단으로 지난 2000년 부터는 ‘송죽 리틀드래곤즈’가 운영되고 있다.

‘중마 리틀드래곤즈’의 감독은 지역 축구인 김종배·정대철씨가 맡고, 브라질 유소년팀 감독을 역임한 루이스씨가 코치로 활동하게 된다.

7~13세까지 팀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은 10월1일부터 12월26일까지 12주다. 가입회비는 월 2만원으로 회원들에게는 전남 드래곤즈 선수의 축구 클리닉 참가, 홈경기 에스코드 체험 기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회원 모집은 연습 실시하며 전남드래곤즈 홈페이지(www.dragons.co.kr)나 전화(061-815-0131)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상은·박성혜 ‘정상 스매싱’

오-16개월만에, 박-데뷔 첫 우승
■ 추계 실업연맹 회장기 남녀 단식



남자 탁구 ‘말똥’ 오상은(31·KT&G)과 여자 기대주 박성혜(22·대한항공·사진)가 2008 추계 실업연맹 회장기 대회에서 나란히 우승해 실업 최강자로 우뚝 섰다.

오상은과 박성혜는 남녀 단식 결승 상대였던 이정우(농심삼다수)와 문현정(삼성생명)의 추격을 각각 4-1과 4-2로 따돌리고 2008 베이징올림픽 이후 처음 열린 실업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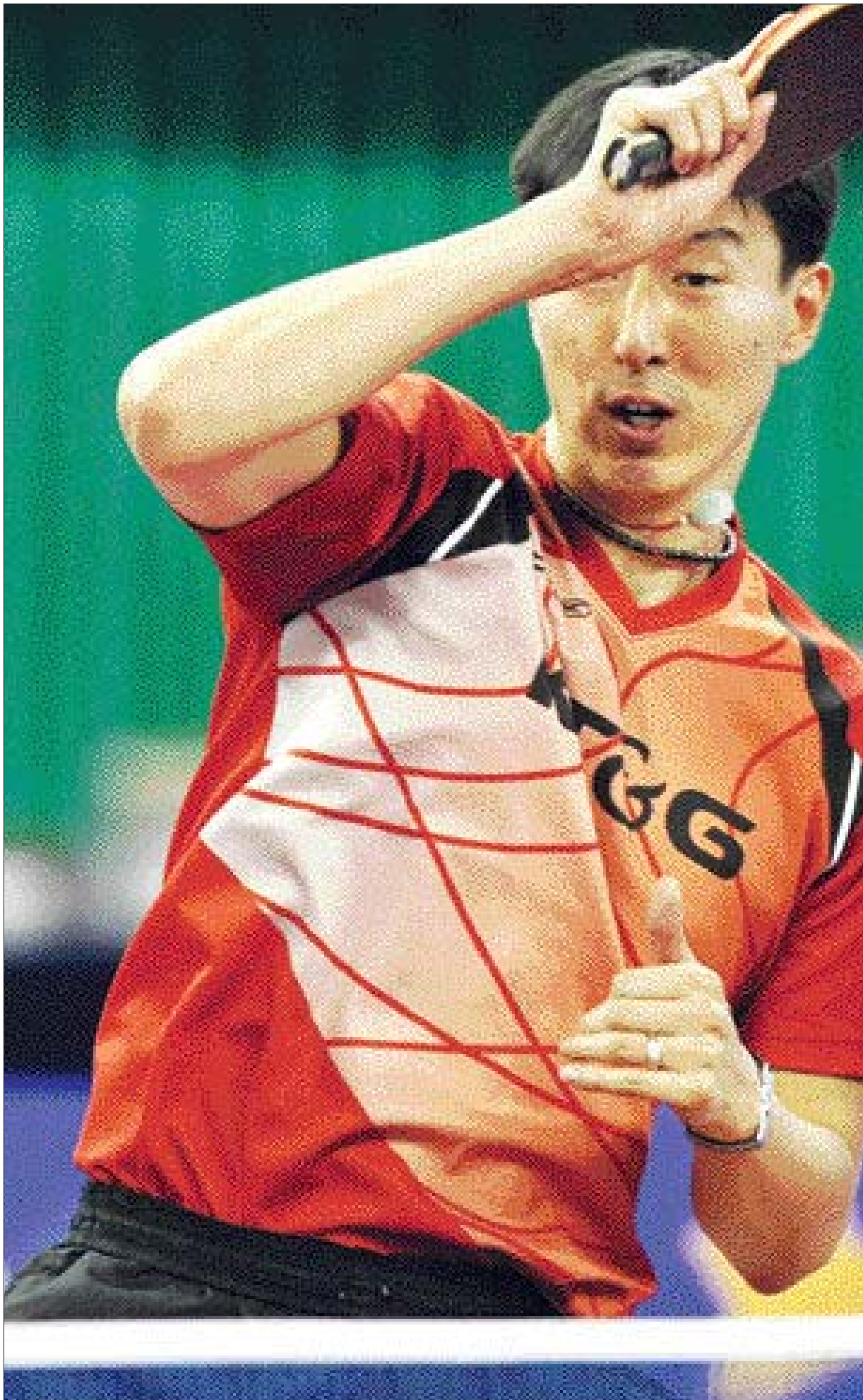
9살 차이로 똑같이 오른손 셰이크핸드 올라운 드 전형인 둘의 우승은 의미가 남다르다.

남자 선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오상은은 어깨수술 공백을 딛고 1년 4개월 만에 국내 1인자 자리에 복귀했고 박성혜는 실업탁구 데뷔 후 처음으로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오상은은 2006년 2관왕(SBS챔피언전·종별선수권)과 지난해 3관왕(종합선수권·종별선수권·코리아오픈)에 오르며 전성기를 구가했으나 그해 11월 혹사했던 오른쪽 어깨 힘줄이 1.7cm 정도 찢어진 것으로 확인돼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하지만 오상은은 6개월여 부상 공백을 딛고 참가한 베이징 올림픽에서 유승민의 부진 공백을 잘 메우며 단체전 동메달 사냥에 앞장섰다. 이번 대회에서는 결승이나 다름없던 대표팀 후배 유승민(삼성생명)과 4강 맞대결을 4-2 역전승으로 장식한 뒤 결승에서 차세대 에이스 이정우마저 4-1로 꺾고 우승했다.

무명이었던 실업 4년차 박성혜도 감격이 오상은 못지않다. 2006년 대한항공 입단 후 처음 전국대회 제패인 테다 제주도 출신 여자 선수로는 첫 우승이기 때문이다.

중·고교와 대학교 때 선수생활을 했던 아버지 박흥만씨의 감각을 물려받은 그는 주무기인 백핸드 드라이브를 앞세워 이번 대회에서 김승실(한국마사회), 김정현(대한항공), 문현정 등 쟁쟁한 국가대표급 선배들을 잇달아 물리치고 실업 1인자 자리에 올랐다.



2일 경북 영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8 추계회장기 한국실업탁구대회 남자부 결승전에서 오상은(KT&G)이 이정우(농심삼다수)에게 스매싱 공격을 하고 있다. 오상은이 이정우를 4-1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리버풀 2연승 질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강호 리버풀과 첼시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예선 2차전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리버풀은 2일(한국시간) 영국 안필드에서 열린 2008-2009 UEFA 챔피언스리그 D조 조별리그(32강) 2차전에서 디르크 카윗의 선제골과 로비 킨의 추가골, 스티븐 제라드의 쐐기골을 앞세워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을 3-1로 물리쳤다.

이로써 리버풀은 올랭피크 마르세유(프랑스)와 1차전 2-1 승리에 이어 2연승 행진을 하였지만 에인트호번(네덜란드)은 2연패에 빠졌다.

같은 조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도 2-1로 꺾은 마르세유를 제물 삼아 2연승을 달려 골 득실에서 리버풀에 앞서 조 1위로 올라섰다. 이날 쐐기골을 넣은 리버풀의 주장 제라드는 개인통산 100호 골을 완성하며 승리에 앞장섰다.

8일부터 포스트시즌 ‘플레이 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부터 시작될 2008 삼성PAVV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 시작시간을 확정해 2일 발표했다.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 한국시리즈 등 포스트시즌 경기는 평일에는 저녁 6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2시에 시작한다.

그러나 12일 대구구장에서 열리는 준플레이오프 4차전과 19일 플레이오프 3차전은 오후 1시30분에 시작된다. 올 포스트시즌 연장전은 페넌트레이스와 마찬가지로 이닝과 시간 제한없이 ‘말장승부’로 펼쳐진다.



KBO는 또 포스트시즌 입장요금과 예매처도 확정했다.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는 지정석 2만5천원, 일반석 1만5천원, 군경·경로·학생·3급이상 장애인 5천원, 어린이는 3천원이다.

한국시리즈는 일반석과 어린이 입장권 가격은 플레이오프와 동일하지만 지정석은 3만5천원이다.

입장권은 현장 판매와 인터넷(www.gmarket.co.kr), 전화(02-6296-0900)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1인당 4매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히어로즈 박노준 단장 사퇴

프로야구 히어로즈의 박노준 단장이 2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

박 단장은 “그동안 심신이 지쳤다. 프로야구가 8개 구단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 이장석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 사장에 감사드린다. 더 좋은 분을 단장으로 모셔 야구단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프로야구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프로야구 단장에 오른 박 단장은 이로써 한 시즌 만에 야인으로 돌아갔다.

다저스 디비전시리즈 첫 승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가 홈으로 포스트시즌에서 기선을 잡았지만 박찬호(35)는 등판 기회를 잡지 못했다.

다저스는 2일(이하 한국시간)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5전3승제) 1차전 시카고 컵스와 경기에서 5회 터진 제임스 모니의 만루홈런과 매니 라미레스, 러셀 마틴의 쐐기포를 앞세워 7-2로 이겼다.